《기획자의 삶, 말로 삶》

**기획이라는 거, 흐름이더라**

툭, 나는 말로 살았다

나는 말을 많이 한다.

그런데 그 말이 그냥 흘러다니진 않았다.

말은

사람을 움직였고,

분위기를 바꿨고,

기획이 되었고,

결국 삶이 되었다.

나는 기획서를 쓰기 전에 이미 기획하고 있었다.

“그냥 이거 해보면 어때요?”

툭!

한 마디면 일이 굴러갔다.

그렇게 굴러가다 보면 누군가가

“선생님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!”

그럴 땐 미안했다.

가끔은 기분도 좋았다.

왜냐고?

말 한 줄로 일이 벌어지는 건 기획자의 숙명이니까.

처음엔 혼자 했다.

자습시간에 도망가는 일도 나름의 ‘기획’이었고.

나중엔 둘이 했다.

“종혁아, 니 이거 같이 안 해볼래?”

그리고

여럿이서도 했다.

날아 온 공문을 보며 짠 아이디어를 회식 중 툭!

실적이 되고 재미가 되었다.

삶 전체가 기획으로 짜이고 말로 연결되어 있었다.

기획자는 직책이나 직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었다.

사람들 사이에서 말 한 줄로 흐름을 틀고

“까이꺼 함 해보지 뭐”는 태도로 공모든 행사든 참여했고 함께 만들었다.

가끔은 부르지도 않고 진행되었고 가끔은 내가 말한 것만 남았지만

언제나 시작은 말이었다.

그래서 이 책은 삶의 기록이 아니라 말의 지도다.

툭툭 던졌던 말들이

어디에 닿았는지,

무엇을 일으켰는지,

누구를 웃겼는지,

그리고

어디서 내가 울컥했는지.

읽는 당신이

“기획이란 게 그런 거였어?”

“말로도 되네?”

하고 웃음 한 번 짓고,

자기 일 한 번 떠올린다면

그걸로 충분하다.

나는 말로 살았고,

그 말이

기획이 되었다.

툭!

당신도 해볼래요?